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33 주지 (창 28:10~30:24)
(2016년 7월 31일 - 2016년 8월 6일)
(제 4 권 33 호)

BACK TO THE BIBLE
B2B MOVEMENT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3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7 월 2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꿈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8:10~17)

- (10 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하란으로 갔습니다. (וַיֵּצֵא יַעֲקֹב מִבְּעַר וַיֵּלֶךְ חָרָנָה.)
- (11 절) 그가 한곳에 이르렀고,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וַיִּפְגַּע בְּמָקוֹם וַיֵּלֶן שָׁם כִּי־בֵּא הַשָּׁמֶשׁ)
 그는 그곳의 돌 중 하나를 골라 그의 베개로 삼았습니다. (וַיִּקַּח מֵאֲבָנֵי הַמָּקוֹם וַיְשִׂם מִרְאֲשֵׁתָיו.)
 그는 그곳에 누웠습니다. (וַיִּשְׁכַּב בְּמָקוֹם הַהוּא.)
- (12 절)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וַיַּחְלֵם)
 그가 보니 사다리가 땅에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וַהֲיָה סֹלֶם מֵצֵב אֲרָצָה וְרֹאשׁוֹ מַגִּיעַ הַשָּׁמַיְמָה)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וַהֲיָה מַלְאָכֵי אֱלֹהִים עֹלִים וְיֹרְדִים בּוֹ)
- (13 절)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וַהֲיָה יְהוָה נֹצֵב עָלָיו וַיֹּאמֶר.)
 나는 여호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אֲנִי יְהוָה אֱלֹהֵי אֲבִרְהָם אָבִיךָ וְאֱלֹהֵי יִצְחָק)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הָאָרֶץ אֲשֶׁר אַתָּה שֹׁכֵב עָלֶיהָ לְךָ אֶתְנַנֶּה וְלִזְרַעֲךָ)
- (14 절) 네 자손은 이 땅의 면지같이 될 것이다. (וַהֲיָה זִרְעֲךָ כַּעֲפַר הָאָרֶץ.)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וּפְרָצְתָּ יָמָה וְקִדְמָה וְצָפֹנָה וְנִגְבָּה.)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וּבִרְכֻוּ כָּךְ כָּל־מִשְׁפָּחַת הָאֲדָמָה וּבְזִרְעֲךָ)
- (15 절)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וַהֲיָה אֲנֹכִי עִמָּךְ.)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וַיִּשְׁמְרֵתִיךָ בְּכֹל אֲשֶׁר־תֵּלֵךְ.)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וַהֲשִׁבֹתִיךָ אֶל־הָאֲדָמָה הַזֹּאת.)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כִּי לֹא אֶעְזָבְךָ עַד אֲשֶׁר אִם־עָשִׂיתִי אֵת אֲשֶׁר־דִּבַּרְתִּי לְךָ.)
- (16 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וַיִּיקָץ יַעֲקֹב מִשְׁנָתוֹ וַיֹּאמֶר.)
 여호와께서 정말 이곳에 계신다. (אָכֵן יֵשׁ יְהוָה בְּמָקוֹם הַזֶּ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וְאֲנֹכִי לֹא יָדַעְתִּי.)
- (17 절)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וַיִּירָא וַיֹּאמֶר.)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מִה־נִּוְרָא הַמָּקוֹם הַזֶּה.)
 이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אִין זֶה כִּי אִם־בַּיִת אֱלֹהִים.)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וְזֶה שַׁעַר הַשָּׁמַיִם.)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집을 나와 무작정 북쪽으로 걸었다. 난생 처음 어머니 품을 떠나는 야곱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어머니 리브가였다. 나이 칠십이 넘도록 한 번도 그 품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길을 떠난다. 하란에 외삼촌이 산다고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그곳을 떠난 지도 벌써 90년이 넘었다. 모든 것이 변했을 것이다. 오래 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외삼촌 라반이 자기도 반갑게 맞아줄 지 어떨 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를 걸었을까? 어두운 밤이 되었다. 더 이상 계속 걷기에는 날이 너무 어두워졌다. 그는 길에서 잠을 자기 위해 한 곳을 찾았다. 돌을 하나 골라 그것으로 베개를 삼고 누웠다. 밤하늘을 수놓은 못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긴 여행에 지친 야곱은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하고 낯선 꿈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까마득히 긴 사다리가 보였다. 양 끝은 땅에서부터 하늘 끝에까지 닿아 있었다.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 그 사다리를 타고 뭔가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비록 꿈에서였지만 야곱은 황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황홀감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여호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은 이 땅의 먼지같이 될 것이다.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 28:13~15).

야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꿈 속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여호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과는 별로 상관 없는 분이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야곱은 지금 형에서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망가는 중이다. 그가 형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실 형에서가 많이 참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에서니 그 정도로 참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야비한 짓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을 하실 때가 많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향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었서와 다투고 있을 때 이미 둘째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먼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결투에 저서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다. 야곱이 형에서의 발 뒷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였으니 그 결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이미 정해졌다. 야곱이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미리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 세상의 칭송을 받는 자든지 아니면 부도덕하여 손가락질 받는 자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가

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사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스스로 모든 걸 잘 해 나가는 애서가 아니라 비열하고 무능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세상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가? 야곱에게 한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인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의로움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언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형애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비열한 야곱, 그 때문에 애서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아닌가?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사 43:1~3).

야곱이 잘 나서도, 이스라엘이 위대해서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명하여 불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방적인 은혜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별떡 일어났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난생 처음 체험했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의 삶 속으로 들어 오셨다.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하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나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서 잠을 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을 통과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인가?

당신은 어떠한가? 아직도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가두어 놓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원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워하셨음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과 약속이 당신의 삶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나요?

야곱의 맹세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8:18~22)

- (18 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וַיָּשָׁם יַעֲקֹב בְּבֹקֶר)
 그는 그가 배게 삼았던 그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וַיִּקַּח אֶת-הָאֲבָן אֲשֶׁר-שָׁם מִרְאֲשֵׁתָיו וַיָּשֶׂם אֹתָהּ מַצְבֵּה וַיִּצַק שָׁמֶן עַל-רֹאשָׁהּ)
- (19 절)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넬이라고 불렀습니다. (וַיִּקְרָא אֶת-הַמָּקוֹם הַהוּא בַּיַּת-אֵל)
 이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וַאֲוִלָּם לִוּוֹ שֵׁם-הָעִיר לְרֹאשָׁנָה)
- (20 절) 야곱이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וַיִּדַּר יַעֲקֹב נֶדֶר לְאֱמֹר)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אִם-יְהִיָּה אֱלֹהִים עִמָּדִי)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וַיִּשְׁמְרֵנִי בַדֶּרֶךְ הַזֶּה אֲשֶׁר אֲנִי הוֹלֵךְ)
 제게 떡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וַנִּתְּנֵ-לִי לֶחֶם לֶאֱכֹל וּכְגֹד לְלַבֵּשׁ)
 (21 절) 제가 제 아버지의 땅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וּשְׁבַתִּי בְשָׁלוֹם אֶל-בֵּית אָבִי)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으로 되실 것입니다. (וְהָיָה יְהוָה לִי לֵאלֹהִים)
- (22 절)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וְהָאֲבָן הַזֹּאת אֲשֶׁר-שָׁמַתִּי מַצְבֵּה יְהוָה בַּיַּת אֱלֹהִים)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제가 반드시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וְכָל אֲשֶׁר תִּתֶּן-לִי עֹשֶׂר אֶעֱשֶׂרנּוּ לָ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밤새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깬다. 그는 자기가 배고 잤던 돌을 가져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장소를 베넬이라 불렀다. 베넬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 기둥을 세운 일이다. 정말 야곱이 한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 정도다. 아마도 아침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그 날이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일 것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그는 오로지 그 약속에만 의지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다다른 후 한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곳이 세겜 땅이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곳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다투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길,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니 두려워 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였고, 그들이 언약을 받은 후에 제단을 쌓았다는 점이다. 약속이 먼저고 예배가 나중이다. 언약과 예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선후가 불분명한 그런 것이 아니다. 언약이 없으면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동시에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의식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막연하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충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여시해서는 안된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다. 게다가 만아들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내용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다. 그가 아무리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 그는 마치 이방인처럼 언약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고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고후 13:5).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정말 십자가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의로움이 확정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말로는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각자 돌아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야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는 가는 이 길을 지켜 주시고, 제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제가 제 아버지의 땅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제가 반드시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창 28:20~22).

야곱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그 말대로라면, 만약 하나님이 그가 제시한 조건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닌가? 지금의 야곱의 신앙 수준은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어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야곱은 쫓기는 신세고, 언제 돌아올 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야곱은 절박한 상태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구절구절마다 간절함이 배어 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는 마음에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방법이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다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더 야비한 외삼촌을 만나 이십 년을 머슴처럼 지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 끝에 숨을 거두고 만다.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속을 썩였다. 심지어 장남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는 방법이셨다. 야곱은 인생말년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야곱이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맞나요? 무엇으로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9:1~12)

- (1 절) 야곱은 다시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וַיֵּשָׂא יַעֲקֹב רַגְלָיו)
 그는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וַיֵּלֶךְ אַרְצָה כְּנִיעַן)
- (2 절)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וַיֵּרָא וְהִנֵּה בְּאֵר בְּשָׂדֵה)
 또 보니, 세 양떼가 그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וְהִנֵּה שָׁם שְׁלֹשָׁה עֶדְרֵי־צֹאן רֹבְצִים עָלֶיהָ)
 그 우물에서 양떼는 물을 마셨습니다. (כִּי מִן־הַבְּאֵר הָהוּא יִשְׁקוּ הָעֶדְרִים)
 우물 입구 위에 놓인 돌은 매우 컸습니다. (וְהָאָבֶן גְּדֹלָה עַל־פִּי הַבְּאֵר)
- (3 절) 모든 양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וַנְּאֶסְפוּ־שָׁמָּה כָּל־הָעֶדְרִים)
 그들(목자들)은 그 돌을 우물 입구에서 옮겼습니다. (וַיִּגְּלוּ אֶת־הָאָבֶן מֵעַל פִּי הַבְּאֵר)
 그들은 그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וְהִשְׁקוּ אֶת־הַצֹּאן)
 그들은 그 돌을 우물 입구, 원래 그 자리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וְהִשִּׁיבוּ אֶת־הָאָבֶן עַל־פִּי הַבְּאֵר לְמַקְוָה)
- (4 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ם יַעֲקֹב)
 형제여,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אֵתֵי מֵאֵינֶן אַתֶּם)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מִחָרָן אֲנִינֹו)
- (5 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ם)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십니까? (הֲיַדְעֶתֶם אֶת־לָבָן בְּנו־נָחֹוֹר)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우리가 그를 압니다. (יָדַעְנוּ)
- (6 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ם)
 그가 평안합니까? (הֲשָׁלוֹם לוֹ)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평안합니다. (שָׁלוֹם)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וְהִנֵּה רָחֵל בָּתּוֹ בָּאָה עִם־הַצֹּאן)
- (7 절) 그(야곱)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보십시오. 아직 해가 높으니 가축들이 모일 시간이 아닙니다. (הֵן עוֹד הַיּוֹם גְּדֹלֵל לֹא־עֵת הָאֶסְףָּ הַמִּקְלָ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십시오. (הִשְׁקוּ הַצֹּאן וּלְכוּ רְעוּ)
- (8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לֹא נוּכָל)
 모든 양들이 모일 때까지, (עַד אֲשֶׁר יֶאֱסְפוּ כָּל־הָעֶדְרִים)
 그래서 우물 입구의 돌이 옮겨질 때, (וַיִּגְּלוּ אֶת־הָאָבֶן מֵעַל פִּי הַבְּאֵר)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וְהִשְׁקִינוּ הַצֹּאן)
- (9 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עוֹדְנוּ מְדַבֵּר עִמָּם)

- 라헬이 그녀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습니다. (וְרַחֵל בָּאָה עִם־הַצֹּאֵן אֲשֶׁר לְאָבִיהָ.)
 그녀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כִּי רֹעֶה הָיָה)
- (10 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았을 때,
 (וַיְהִי כִּשְׁאֵר רָאָה יַעֲקֹב אֶת־רַחֵל בֶּת־לְבָן אֶחָי אִמּוֹ וְאֶת־צֹאֵן לְבָן אֶחָי אִמּוֹ)
 야곱은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의 돌을 옮겼습니다. (וַיִּגַּשׁ יַעֲקֹב וַיִּגַּל אֶת־הָאֲבָן מֵעַל פִּי הַבְּאֵר)
 그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וַיִּשְׁק אֶת־צֹאֵן לְבָן אֶחָי אִמּוֹ)
- (11 절)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וַיִּשְׁק יַעֲקֹב לְרַחֵל וַיִּשָּׂא אֶת־קִלּוֹ וַיִּבְךְּ)
- (12 절) 야곱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וַיִּגַּד יַעֲקֹב לְרַחֵל)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와 친척인 것과, (כִּי אֶחָי אָבִיהָ הָיָה)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וְכִי בְנוֹ־רִבְקָה הָיָה)
 그녀는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וַתָּרֵץ וַתִּמְגַּד לְאָבִי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침 일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까지 한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을 향해 걸었다. 처음 집을 나설 때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가끔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기도 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도 자기를 향해 축복의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집을 나설 때만 하더라도 미래는 암울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두렵고 떨렸다. 그런데 베엘에서의 하룻밤이 야곱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한테서 축복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선포하셨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그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야곱에게 이어져 온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야 곱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언약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동시에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른다. 그의 눈에 우물 하나가 들어 왔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사람들이 산다는 뜻이다. 반가운 마음에 우물가로 다가갔더니 세 양떼가 그 곁에 한가롭게 누워 있었다. 양떼들이 모이자 목자들은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큼지막한 돌을 옮겨 양에게 물을 먹였다. 양들이 모두 물을 마시자 그들은 다시 우물의 입구를 돌로 막아 두었다. 우물의 크기로 보아 주변에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도 이 동네에 살 거라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한다. 하란이란. 하란...야곱은 길을 제대로 찾아온 것이다.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맬 수도 있었다. 게다가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장막을 떠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집돌이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란에 당도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마침내 찾아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실수 한 번 없이 기적처럼 하란에 도착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기 때문이리라.

급한 마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란 땅이 넓기는 해도 흑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은 야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야곱은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으로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과 라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멀리 한 무리의 양떼를 몰고 오는 여인이 보였다. 그들이 그 여인을 가리키며 외쳤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우물로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라헬과 그녀가 몰고 온 양떼를 보자마자 우물로 달려가서 우물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았다. 야곱은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그녀를 위해 무엇이랴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을 그곳에서 만나다니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자기 인생에서 이토록 일이 순조롭게 풀린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사실 야곱은 늘 잔피를 부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다. 순리보다는 역리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피를 부리지 않았는데도 일이 순리대로 풀린 것이다.

야곱은 너무도 감사했다. 집을 나선 후부터 발이 부르튼고 신발이 해지도록 걷고 또 걸었다. 밤이 되면 아무 곳에서나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 때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이다. 하란 땅 어디엔가 살고 있을 외삼촌을 찾아 그 먼 길을 왔는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도 순조롭게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야곱은 울컥 눈물이 났다. 지금까지의 고생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셨다는 안도감과 감사에서 나온 눈물이었을 것이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는 목청껏 울었다. 외로운 한 남자의 울음 소리가 드넓은 평원으로 끝없이 퍼져 나갔다.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모른다. 울음을 그친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자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라헬은 그길로 아버지께 달려갔다. 그리고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형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서둘러 집을 나선 야곱은 순적하게 하란에 도착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다. 집을 나설 때의 두려움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셨다. 그는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했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 사실 야곱이 자기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거지만 그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인간은 삶을 통해 그 사실을 경험할 뿐이다. 야곱의 여정이 그랬다. 우리는 어떤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 길에서 때론 피도 부려보고, 이런 저런 죄를 지으며 절망도 해보고, 때론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꾸어보려고 아등바등거릴 때가 많다. 성경은 그것을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일랑 예수님께 맡기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데 무엇이 어떻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당신은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하의 아굽이 사기를 당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9:13~29)

- (13 절) 라반이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וַיְהִי כִשְׁמַע לְבָן אֶת־שִׁמְעַ עֵשָׂו בְּנֵי־חָתָן) 그를 부르기 위해 달려가서 그를 만났고, (וַיֵּרָץ לִקְרֹאתוֹ וַיִּחַבְקֵהוּ)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וַיִּנְשָׁקֵהוּ וַיְבִיאוּהוּ אֶל־בֵּיתוֹ)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וַיְסַפֵּר לְלָבָן אֶת־כָּל־הַדְּבָרִים הָאֵלֶּה)
- (14 절)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וֹ לָבָן) 너는 정말로 내 백고 내 살이다. (נַעַמְי וּבְשָׂרִי אֶתָּה) (내 혈육이다.)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습니다. (וַיֵּשֶׁב עִמּוֹ חֹדֶשׁ יָמִים)
- (15 절)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בָן לְיַעֲקֹב) 네가 나의 친척이라고 해서 나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면 되겠느냐? (הֲכִי־אֶחָי אָתָּה וְעַבְדְּתַנִּי חֲנָם) 무엇이 네 보수가 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הֲגִידָה לִּי מַה־מְשַׁכְּרָתְךָ)
- (16 절)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וּלְלָבָן שְׁתֵּי בָנוֹת) 언니의 이름은 레아,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שֵׁם הַגְּדֹלָה לְאָה וְשֵׁם הַקְּטָנָה רָחֵל)
- (17 절) 레아의 눈은 약했습니다. (וַעֲיֹנֵי לְאָה רַכּוֹת) 라헬은 몸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וְרָחֵל הָיְתָה יְפֹת־תֹּאֵר וַיִּפֹּת מְרָאָה)
- (18 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말했습니다. (וַיֹּאֲהֵב יַעֲקֹב אֶת־רָחֵל וַיֹּאמֶר)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7년간 섬기겠습니다. (אֶעֱבֹדָךָ שָׁבַע שָׁנִים בְּרָחֵל בְּתַרְחַל הַקְּטָנָה)
- (19 절) 그(라반)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בָן) 너에게 그녀를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주는 것보다 더 좋다. (טוֹב תַּתִּי אֶתָּה לָךְ מִתַּתִּי אֶתָּה לְאִישׁ אֲחֵר) 나와 함께 머물러라. (שָׁבָה עִמָּדִי)
- (20 절)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습니다. (וַיַּעֲבֹד יַעֲקֹב בְּרָחֵל שָׁבַע שָׁנִים) 그러나 그녀를 향한 야곱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눈에 며칠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וַיְהִי בְעֵינָיו בְּעֵינָיו כְּיָמִים אֶחָדִים בְּאַהֲבָתוֹ אֶתָּה)
- (21 절)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עֲקֹב אֶל־לָבָן) 제 아내를 주십시오. (הֲבֵה אֶת־אִשְׁתִּי) 제 기한이 다 찼습니다. (כִּי מָלְאוּ יָמַי) 제가 그녀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וְאָבוֹאָה אֵלַיָּה)
- (22 절)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וַיִּצְאֵף לָבָן אֶת־כָּל־אֲנָשֵׁי הַמָּקוֹם וַיַּעַשׂ מִשְׁתֶּה)
- (23 절) 저녁이 되었고, 라반은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וַיְהִי בַעֲרֵב וַיִּקַּח אֶת־לְאָה בָתּוֹ וַיָּבֵא אֶתָּה אֵלָיו)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וַיָּבֵא אֵלַיָּה)

- (24 절) 라반은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바를 그녀의 종으로 주었습니다.
(וַיִּתֵּן לָבָן לָהּ אֶת־זִלְפָּה שִׁפְחָתוֹ לְלֵאָה בְּתוֹ שִׁפְחָה)
- (25 절) 아침이 되고 보니 그녀는 레아였습니다.
(וַיְהִי בַבֹּקֶר וַהֲגִה־הוּא לֵאָה)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לָבָן)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מִמָּה־זֹאת עֹשִׂיתָ לִּי)
제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הֲלֹא בְרַחֵל עֲבַדְתִּי עִמָּךְ)
왜 저를 속이신 겁니까?
(וְלָמָּה רַמִּיתָנִי)
- (26 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בָן)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לֹא־יַעֲשֶׂה כֹּן בְּמִקּוֹמֵנוּ לְתַת הַצְעִירָה לְפָנֵי הַבְּכִירָה)
- (27 절) 이를 위해 7일을 채워라.
(מִלֵּא שָׁבַע זָאת)
우리가 그녀 또한 네게 줄 것이다.
(וַנִּתְּנָה לָּךְ גַּם־אֶת־זֹאת)
그래서 네가 다시 7년을 더 나를 섬기도록,
(בְּעִבְדָּה אֲשֶׁר תַּעֲבֹד עִמָּדִי עוֹד שָׁבַע־שָׁנִים אַחֲרָיִךְ)
- (28 절) 야곱은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웠습니다.
(וַיַּעַשׂ יַעֲקֹב כֹּן וַיִּמְלֵא שָׁבַע זָאת)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וַיִּתֵּן־לוֹ אֶת־רַחֵל בְּתוּ לוֹ לְאִשָּׁה)
- (29 절) 라반은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여종 빌하를 그녀의 종으로 주었습니다.
(וַיִּתֵּן לָבָן לְרַחֵל בְּתוֹ אֶת־בִּלְהָה שִׁפְחָתוֹ לָהּ לְשִׁפְחָ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은 한걸음에 우물로 달려왔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야곱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라반은 야곱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임을 확인하고는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너는 정말로 내 뼈고 내 살이다.”

이 표현은 아담이 이브를 향해 처음 고백한 말과 거의 흡사하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야곱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할 일들을 암시하기도 한다. 친밀한 가족 관계란 종이나 품꾼과는 달라서 서로 간에 품삯을 정하거나 노동의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라반은 야곱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심 그것을 빌미로 사실상 야곱의 노동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지 어언 한 달이 지났다. 야곱은 그 동안 삼촌집에서 이런 저런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사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형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사람을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약속 말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알다시피 이 약속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낼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여하튼 야곱이 온지 한 달여가 지난 후 라반이 야곱을 불렀다. 아무리 외삼촌과 조카 관계라지만 아무래도 서로 간에 품삯을 정하고 일하는 것이 좋겠다며 야곱에게 품삯을 먼저 제시해 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의외였다. 그는 7년간의 노동의 품삯으로 라반의 딸라

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한다. 다시 말해 라헬과 혼인하는 조건으로 칠 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다. 맏딸 레아는 눈이 나빴다. 반면 라헬은 몸도 외모도 모두 아름다웠다. 야곱은 그런 라헬을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야곱이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선뜻 칠년이라는 말을 꺼냈겠는가?

당시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소위 말해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다. 지참금은 신부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신부의 외모나 됃됨이, 또는 신부집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지참금의 액수가 달라졌다. 지참금은 통상적으로 신부의 부모가 정했다. 신랑이 제시하는 지참금의 액수가 신부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만 혼인이 성사된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7년치 품삯을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라반에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어차피 지참금 액수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니 처음부터 금액을 크게 부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야곱이 지참금을 모두 다 지급할 때까지는 어차피 라헬과 결혼할 수도 없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금액을 적게 제시하고 그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일 경우엔 야곱은 라헬과 더 빨리 결혼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칠 년을 일하겠다고 했다. 라헬을 신부로 맞기 위해 야곱으로서는 거액의 지참금을 제시한 셈이다. 이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이면 혼인이 성사된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라헬은 정식으로 야곱의 약혼녀가 되는 것이다. 야곱은 과연 라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어떨지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야곱의 간절한 바람대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전혀 낯선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보내는 것보다는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장려하던 시절이니 오늘날의 잣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인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바로 맏딸 레아 때문이다.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워 누구나 탐을 냈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레아를 빨리 결혼시키는 게 급선무였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지도 않은 제안을 해 오자 이게 웬 떡이나 싶었다. 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을 끝낸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다는 일념으로 칠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말이 쉽지만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지만 야곱에게 칠년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았다. 라헬을 향한 깊은 사랑이 길고 긴 노동의 시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다.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다. 라반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혼인 잔치를 했다. 당연히 신부는 라헬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다. 드디어 신랑이 준비한 신혼방으로 신부가 들어갈 시간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부의 옷으로 단장시켰다. 그리고는 신혼방으로 들여 보냈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장막 안은 사람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은 기쁘고 설레는 맘으로 신부를 맞이했을 것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신혼의 기쁨에 겨워 단잠을 잔 야곱은 느즈막히 눈을 떴다. 그리고는 사랑스런 눈길로 곁에 누운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기 곁에 누워 있는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다!

야곱은 너무도 화가 나서 곧바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라반은 너무도 태연하게 대답한다. 라반이 사는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단다. 그리고는 레아와의 신혼 기간 칠 일을 채우란다. 그러고 나면 라헬을 줄 테니 칠 일만 더 기다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얻는 대가로 칠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야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다. 야곱은 절대로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반은 이미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며 야곱을 속인 것이다. 그 동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살아온 야곱이 이번엔 거꾸로 외삼촌에게 보기 좋게 당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라반이 처음부터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다면 절대로 7년 기간으로 협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곱이 7년이라는 길 세월을 힘들다 여기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라헬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라헬을 위해서 다시 칠 년을 더 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라헬의 몸값으로 야곱이 지불한 금액은 자그마치 그의 14년치 연봉인 셈이다. 야곱은 라반이 내건 조건에 할 수 없이 합의했고, 7일 후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부터 다시 칠 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한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삶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야곱은 그동안 늘 속이는 자로 살았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야비한 사람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도망치던 첫날 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선포하셨다. 야곱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엄연히 언약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언약을 받은 당사자요 주체로서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된 훈련에 돌입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을 붙이신 것이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꿈쩍없이 속만 끓이며 살아야 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구원 받고 약속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다. 지금 당신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 힘들지만 그런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나면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 대신 성경적 가치관이 새로운 당신을 빚어갈 테니 말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나서 당신의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요? 그 훈련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9:30~35)

- (30 절) 야곱은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וַיָּבֹא גַם אֶל־רָחֵל וַיֵּאָהֵב גַּם־אֶת־רָחֵל מִלֵּאָה)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וַיַּעֲבֹד עִמּוֹ עוֹד שִׁבְע־שָׁנִים אַחֲרוֹת.)
- (31 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וַיֵּרָא יְהוָה כִּי־שָׂנוּאָה לֵאָה)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וַיִּפְתַּח אֶת־רַחֲמָהּ)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וְרָחֵל עֲקָרָה)
- (32 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וַתֵּהֵר לֵאָה וַתֵּלֵד בֶּן וַתִּקְרָא שְׁמוֹ רְאוּבֵן)
 그녀가 말했습니다. (כִּי אָמַרָ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כִּי־רָאָה יְהוָה כְּעִנְיִי כִּי עָמָה יֵאָהֲבֵנִי אִישִׁי)
- (33 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הֵר עוֹד וַתֵּלֵד בֶּן)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כִּי־שָׁמַע יְהוָה כִּי־שָׂנוּאָה אֲנִי וַיִּתֵּן־לִי גַם־אֶת־הָאֵלֶּה)
 그녀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וַתִּקְרָא שְׁמוֹ שִׁמְעוֹן)
- (34 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הֵר עוֹד וַתֵּלֵד בֶּן)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연합할 것이다. (עָמָה הִפְעַם יִלְוֶה אִישִׁי אֵלָי)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이다. (כִּי־יִלְדֹתִי לוֹ שְׁלֹשָׁה בָּנִים)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했습니다. (עַל־כֵּן קָרָא שְׁמוֹ לֵוִי)
- (35 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הֵר עוֹד וַתֵּלֵד בֶּן)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הִפְעַם אוֹדָה אֶת־יְהוָה)
 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עַל־כֵּן קָרָאָה שְׁמוֹ יְהוּדָה)
 그녀는 아이 낳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וַתַּעֲמֹד מִלְּדוֹ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에 가까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야곱은 그 성정이 별로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야곱의 왜곡되고 편향된 성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였다. 하지만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 어쩌다 겨우 남편과 동침을 한 레아는 그때마다 임신을 했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

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여인의 태를 열고 맡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나 언약안에 있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다. 사라는 생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리브가도 결혼한지 20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성경 기록상 최초로 쌍둥이를 낳았다. 이번에는 레아와 라헬이다. 하나님은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반면에 라헬의 태는 철저히 닫으셨다. 그 때문에 레아와 라헬을 친자매이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목하는 원수같은 관계로 치닫는다.

먼저 레아부터 얘기해 보자. 레아는 무엇보다 남편 야곱으로부터 한 번만이라도 사랑받아 보는 게 소원인 여인이다. 그녀는 늘 라헬에게 밀려 뒷방 신세였다. 야곱이 레아를 찾아 온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의무감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합방을 한 후에는 어김없이 임신을 했다. 라헬은 단 한번도 임신이 된 적이 없는데 레아는 그새 무려 네 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는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사무치는 소망을 아들 이름에 담았다. 남편 야곱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였을 것이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רְאוּבֵן)이라고 불렀다. 르우벤이란 말은 ‘아들을 보라!’라는 의미다. 자기가 야곱에게 첫 아들을 안겨 준 셈이니, 이 아들로 인해 드디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앞세워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레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이름에 담겨 있다.

레아가 야곱에게 첫 아들을 안겨 주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레아는 그저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씨받이’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약속한 7년의 기한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역하고 있다. 남의 집 더부살이도 고달프고 힘든데 가정사조차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너무도 답답했을 것이다. 자식은 하나 둘, 늘어가는데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바치고 자기는 여전히 빈털터리다. 게다가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는 자식 소식은 감감이다. 레아는 레아대로 남편의 사랑을 애원하며 자식을 앞세워 동생 라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고된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야곱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은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다. 르우벤을 낳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시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 아들을 낳자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말이다. 이번에도 레아는 시므온을 통해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했다. 그만큼 남편을 향한 사랑이 간절했다. 사실 레아(רְאוּבֵן)라는 이름 자체가 지친 자, 탈진한 자라는 뜻이다. 레아는 삶에 지치고 사랑에 지쳤다. 아들을 앞세워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학수고대하는데도 남편은 꿈쩍도 않는다. 야곱에게는 언제나 라헬뿐이다. 일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부르는 이름은 늘 라헬이었다.

레아는 또 다시 아들을 낳았다. 세 번째 아들이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 정도 되면 제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여 연합하지 않겠느냐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레아는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아들 셋을 낳는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남편의 사랑을 포기한 그녀가 넷째를 임신했다. 레아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야곱 대신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야곱에게 갈망한 인간적 사랑 대신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레아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처럼 레아는 삶에 지치고 사랑에 지쳤다. 동생 라헬과 비교 당하는 것에 지쳤고, 남편에게 경시당하는 것에도 지쳤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얻는데 끝내 실패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을 항상 지켜보며 사랑의 눈길을 주고 계신 분이 보였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니 네 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레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한 적이 없었다. 오직 남편에게만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살았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문득 깨달음이 왔다. 세상에서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도 막연한 기대 속에 하루를 살지만 삶은 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기대해 보지만 결과는 실망뿐일 때가 많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맘이 점점 지쳐갈 때 과연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아닌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품안으로 오라고...그러면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당신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에 눌러 지쳐가고 있는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 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보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왔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었나요? 당신은 언제 삶이 지치고 힘들게 느껴졌나요? 그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두 아내의 무한 경쟁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0:1~13)

- (1 절) 라헬이 그녀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וַתֵּרָא רָחֵל כִּי לֹא יֵלְדָה לְיַעֲקֹב) 라헬은 그녀의 언니를 시기하였습니다. (וַתִּקְנֵא רָחֵל בְּאֵחָתָהּ)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אֶל-יַעֲקֹב) 내게 자녀를 주세요. (הֲבֵהָ-לִי בָנִים)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וְאִם-אֵין מִתָּה אֲנֹכִי)
- (2 절)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וַיִּסְרֹאף יַעֲקֹב בְּרָחֵל וַיֹּאמֶר) 당신 태중의 열매를 막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הֲתַחַת אֱלֹהִים אֲנֹכִי אֲשֶׁר-מִנַּע מִמֶּךָּ פְּרִי-בֶטֶן)
- (3 절)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여기 내 여종 빌하가 있으니 그녀에게 들어가세요. (הִנֵּה אִמְתִּי בַלְהָה בְּאֵ אֵלֶיהָ) 그녀가 네 무릎 위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וַתֵּלֶד עַל-בְּרָכִי) 그래서 나도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 것입니다. (וְאִפְנֶה גַם-אֲנֹכִי מִמֶּנָּה)
- (4 절) 라헬이 그녀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וַתִּמְוַלְּוּ אֶת-בַּלְהָה שְׁפָחָתָהּ לְאִשָּׁה)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וַיָּבֵא אֵלֶיהָ יַעֲקֹב)
- (5 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הַר בַּלְהָה וַתֵּלֶד לְיַעֲקֹב בֶּן)
- (6 절) 라헬이 말했습니다. (וַתֹּאמֶר רָחֵל)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셨다. (דָּבַנְנִי אֱלֹהִים) 그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וַיִּשְׁמַע בְּקוֹלִי וַיִּמְוַלְּוּ לִּי בֶן)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עַל-כֵּן קָרָאתָ שְׁמוֹ דָּן)
- (7 절)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וַתֵּהַר עוֹד וַתֵּלֶד בַּלְהָה שְׁפָחַת רָחֵל בֶּן שְׁנֵי לְיַעֲקֹב)
- (8 절) 라헬이 말했습니다. (וַתֹּאמֶר רָחֵל) 내가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נִפְתַּלְתִּי אֱלֹהִים נִפְתַּלְתִּי עִם-אֵחָתִי גַם-יִקְלָלֵתִי)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וַתִּקְרָא שְׁמוֹ נִפְתָּלִי)
- (9 절)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바를 데려와서 그녀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וַתֵּרָא לֵאָה כִּי עָמְדָה מִלְדֹת וַתִּקַּח אֶת-זִלְפָּה שְׁפָחָתָהּ וַתִּתֵּן אֹתָהּ לְיַעֲקֹב לְאִשָּׁה)
- (10 절) 레아의 여종 실바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לֶד זִלְפָּה שְׁפָחַת לֵאָה לְיַעֲקֹב בֶּן)
- (11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אָה) 복이 왔다! (בָּגַד)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했습니다. (וַתִּקְרָא אֶת-שְׁמוֹ גָּד)
- (12 절) 레아의 여종 실바는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וַתֵּלֶד זִלְפָּה שְׁפָחַת לֵאָה בֶּן שְׁנֵי לְיַעֲקֹב)
- (13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אָה) 기쁘다! 여자들이 나를 기쁜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בְּאַשְׁרֵי כִּי אֲשֶׁרוּנִי בְנֹת)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וַתִּקְרָא אֶת-שְׁמוֹ אָשֶׁר)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했다. 곱고 자상했던 라헬은 점점 시기와 질투심으로 마음이 상해갔다. 결국 그녀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다짜고짜 야곱에게 아들을 달라고 따지고 들었다. 아들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 만큼 그녀는 절박했다. 남편의 사랑도 자식 없는 허무감을 달랠 수 없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이다. 남편의 모든 재산이나 하나님의 축복도 모두 레아의 아들이 차지하게 될 판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라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협박했겠는가? 하지만 이런 라헬을 다독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야곱은 도리어 역정을 내며 라헬에게 말했다.

“당신 태중의 열매를 막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 할 수 있겠는가?”

야곱의 대답은 그의 답답한 심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야곱인들 라헬로부터 아들을 얻고 싶지 않았겠는가?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어도 레아는 물론 그 아들에게까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야곱이다. 레아를 아내로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이 야곱의 마음에 들 리 만무하다. 훗날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보면 야곱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면 야곱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대는 라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자신은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괴감과 무력감 때문에 말이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라헬은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자신의 여종 빌하가 있으니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고자 했을까? 라헬의 이런 모습은 그의 시할머니 사라의 모습과 닮아 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 남편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이라곤 없었으니 남편에게 깊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말한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물론 사라의 경우와 라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에게는 이미 네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 지금 라헬이 떼를 쓰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집안에 후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소생의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라헬 개인의 라이벌 의식과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야곱은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두명의 아들을 낳는다. 단과 답달리가 그들이다. 라헬은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 했고, 하나님이 그의 바람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자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답달리다. 자신이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며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보면 라헬은 레아에 대해 일종의 패배 의식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자식이 없음은 절대적 결핍이다. 물론 야곱은 이미 레아를 통해 아들을 넷이나 낳은 상태다. 따라서 라헬이 느끼는 패배감이나 결핍감은 라헬 개인의 문제지 야곱 가문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라헬은 언니 레아와 서로 극심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고 라헬은 자식에 목말라 했다. 특히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에 더해 남편의 자식까지 낳음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독점하고자 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비록 자기 배로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라헬은 두 명의 아들을 가진 셈이다. 라헬은 낱달리를 통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승리를 선포했다.

그런 라헬에 맞서 이번에는 레아가 나섰다. 레아라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 이번에도 야곱은 순순히 레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어찌보면 야곱도 참으로 무심하기 짝이 없다 싶다. 레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감도 못 잡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라헬이 언니에게 얼마나 강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어쨌든 야곱은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 또 다시 아들 둘을 낳았다. 첫째가 갓이고, 둘째가 아셀이다. 갓은 ‘복이 왔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레아는 몸종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더 얻게 돼서 정말 기뻐던 것 같다. 이렇게 두 자매의 질투와 경쟁심 덕에 야곱은 여덟 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다. 알다시피 야곱은 모두 열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된다. 갓과 아셀까지 낳았으니 제법 그토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 질투하고 경쟁한다. 인간들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한다. 언뜻 보면 세상은 인간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듯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인간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이 장면도 그렇다. 야곱이 여덟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라헬과 레아의 질투와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네 명의 아들이 더 생기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열두 지파의 토대가 완성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야곱의 집에 계속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야곱의 탁월한 생식 능력 때문도 아니고, 두 아내의 질투와 경쟁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들도 그렇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세상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으로 양분될 수가 없다. 게다가 성공과 실패조차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눈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실패로 보이는 삶도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은 간음이라는 너무도 수치스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불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다. 그녀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런 죄가 드러났고 수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 죄인으로 끌려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필이면 예수님 앞으로 끌려 왔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실로 그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 일로 참된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이 그 사실을 아는 자라면 실패했을지라도 숨어 있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여 주실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합환채를 통해 얻은 아들들(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0:14~24)

- (14 절) 밀 추수철이 되었을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환채를 발견했습니다.
 (וַיֵּלֶךְ רְאוּבֵן בְּיָמֵי קִצְרֵי-חֹטִים וַיִּמְצָא דֹדָאִים בַּשָּׂדֶה)
 그는 그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וַיָּבֵא אֹתָם אֶל-לֵאָה אִמּוֹ)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רַחֵל אֶל-לֵאָה)
 제발 나에게 네 아들 르우벤의 합환채를 줘! (תְּנִי-נָא לִי מִדֹּדָאֵי בְנֶיךָ)
- (15 절)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הּ)
 네가 나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הֲמַעַט קָחַתְּךָ אֶת-אִישִׁי)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וְלָקַחַת גַּם אֶת-דֹּדָאֵי בְנֵי)
 라헬이 말했습니다. (וַתֹּאמֶר רַחֵל)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환채를 대신하여 오늘 밤 그가 언니와 동침할 거야.
 (לָכֵן יִשְׁכַּב עִמָּךְ הַלַּיְלָה תַּחַת דֹּדָאֵי בְנֶיךָ)
- (16 절) 저녁 때가 되어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וַיָּבֹא יַעֲקֹב מִן-הַשָּׂדֶה בְּעֶרְב)
 레아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와서 말했습니다. (וַתֵּצֵא לֵאָה לִקְרָאתוֹ וַתֹּאמֶר)
 당신은 내게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אֵלַי תָּבוֹא)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כִּי שָׂכַר שְׂכָרְתִּיךָ בְּדֹדָאֵי בְנֵי)
 그날 밤, 야곱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וַיִּשְׁכַּב עִמָּהּ בַּלַּיְלָה הַהוּא)
- (17 절) 여호와께서 레아를(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וַיִּשְׁמַע אֱלֹהִים אֶל-לֵאָה)
 그녀는 임신했고,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הַר וַתֵּלֶד לַיַּעֲקֹב בֶּן-חַמִּישִׁי)
- (18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אָה)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몫을 주셨다.
 (נָתַן אֱלֹהִים שְׂכָרִי אֲשֶׁר-נָתַתִּי שְׂפָחָתִי לְאִשְׁתִּי)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했습니다. (וַתִּקְרָא שְׁמוֹ יִשָּׁשְׂכָר)
- (19 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וַתַּהַר עוֹד לַאֲהָה וַתֵּלֶד בֶּן-שֵׁשִׁי לַיַּעֲקֹב)
- (20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אָ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וַיְבַדְנִי אֱלֹהִים אֹתִי וַיְבַד טוֹב)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הַפַּעַם יִזְבְּלֵנִי אִישִׁי)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כִּי-יִלְדָתִי לוֹ שֵׁשָׁה בְּנָיִם)
 그녀가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고 했습니다. (וַתִּקְרָא אֶת-שְׁמוֹ זְבֻלוֹן)
- (21 절)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았습니다. (וַאֲחֵסֶר יְלֵדָה בָּת)
 그녀는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습니다. (וַתִּקְרָא אֶת-שְׁמָהּ דִּינָ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밀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요즈음 달력으로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 경쯤일 것이다.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 가나서 합환채를 발견했다. 르우벤은 그것을 가져다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라헬이 보고는 레아에게 르우벤이 가져 온 합환채를 달라고 졸라댔다. 라헬은 그 합환채를 얻기 위해 거의 애원을 하다시피 했다. ‘티나나’(תִּינָנָה)는 “제발주세요!”라는 의미다. 도대체 합환채가 무엇이길래 천하의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합환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특이한 식물이다. 히브리어로는 ‘두다임’(דּוּדַיִם)이라 불리는 식물로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정력에 특효약인 셈이다. 두다임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식물이 여성의 임신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이 식물은 11월경부터 자라기 시작해 12월이면 보라색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이 지면 탁구공만한 열매가 대여섯 개 맺히는데 이 열매는 5-6월이면 완전히 익어 오렌지 색을 띤다. 합환채는 그다지 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 약효 때문에 ‘사랑의 사과’(love apple)로 불리기도 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악마의 촛불’이라고도 부른다. 합환채를 먹으면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 되면 라헬이 그토록 간절히 합환채를 원했던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몇 가지 개연성을 놓고 라헬이 왜 합환채를 원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 생식 능력이 약해졌고 그런 남편의 힘을 보강해야만 라헬이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가정이다. 개인적으로 라헬이 야곱을 위해 합환채를 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합환채 없이도 야곱은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생식 능력이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이 합환채가 필요할 정도로 갑자기 체력이 약해졌을 리도 만무하다. 두 번째는 레아가 합환채를 먹고 또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막으려고 그랬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안 그래도 벌써 많은 아들을 낳은 레아가 또 다시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라헬로서는 도저히 참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정도 개인적으로는 그리 썩 와 닿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 볼 수 있는 가정은 라헬이 스스로 합환채를 먹고 닫힌 태를 열어 보고자 그랬다는 가정이다. 사실 합환채를 획득한 이후에 라헬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합환채를 분명히 라헬이 먹었다는 데에 한 표를 던지겠다.

성경은 르우벤이 합환채를 가져 온 때가 밀을 추수할 무렵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한 마디도 그냥 흘러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절기를 의미하는 구절들은 더더욱 그렇다. 밀을 추수할 무렵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합환채가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정보를 주고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성경은 밀 추수를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과 같은 날이다. 따라서 합환채 사건이 오순절 무렵에 일어났다는 말이다.

합환채 사건이 있은 후 레아는 잇사갈과 스블론을 연이어 낳는다.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로써 다섯째와 여섯째다. 그리고 일곱째는 딸인 디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름과 이름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이들 세 명의 이름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 레아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기에게 남편을 주셨다는 의미로 다섯

째아들을 잇사갈(יִשְׂשַׁק)이라 이름했다. 잇사갈은 ‘보상, 값’이라는 뜻이다. 그녀가 먼저 희생했고, 그 댓가로 남편을 얻었다는 말이다. 그녀의 여섯 번째 아들 이름은 스블론(יִבְלֹן)이다. ‘함께 거하다’는 뜻이다. 한편 그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 이름은 디나(דִּינָה)인데 그녀의 이름은 ‘정당성을 입증받다’라는 의미다. 이들 세 명의 이름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과 너무도 흡사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값을 치르셨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종이라 칭했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막 10:45 참조). 예수님은 자신을 종의 몸으로 드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잇사갈). 그리고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와 연합하신다 (스블론). 그가 우리를 정당하게 하였고, 우리를 의롭다 입증하셨다. (디나)

레아가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레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하게 된다. 레아가 아이를 일곱이나 낳는 동안 야곱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한다. 그런데 정작 변한 것은 레아다. 지독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태가 닫히기 전 마지막 출산 때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정당성이 입증된 여인으로 거듭났다. 남편의 외면과 무관심이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레아의 삶이 여자로서는 너무도 비참하고 기구하다고 말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레아에게는 인내하기 힘든 고통이고 수치였다. 확실히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특별히 생각하셨고, 레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이처럼 삶에서 부딪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는 데 없이 귀한 도구가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경험한 고통과 시련이 당신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련을 인내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까?